

대한상의 브리프

송실대학교 이정철 교수



제66호 2018년 5월 14일



편집자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되고 남북 공동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의 내용과 의미

2018 남북정상회담은 세기의 관심을 한군데 모은 일대 사건이었다.

이번 회담은 판문점이라는 장소적 특성, 북미회담을 앞둔 시기적 성격, 합의문의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비할 바 없이 중요했다.

판문점 개최의 의미

2002년도 2차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장소 문제로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 남북은 6.15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2002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자는 논의를 시작했다.

우리 측은 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제안했다. 이에 북한은 “판문점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미군이 관할하는 지역이므로 불가능하다” 며 거부했고 결국 정상회담 제안을 전격 철회했다.

평창올림픽 당시(2018년 2월)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 논의를 하면서 다시 판문점 개최를 제안했다. 북측 실무자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2002년도와 같은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논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우리 대북 특사단에게 판문점 개최의 뜻을 밝혔다. 평양 개최를 각오하고 있던 우리 특사단에게 북한의 양보는 상상 밖이었다.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정상]



※ 출처 : 청와대



[정상회담이 개최된 ‘평화의 집’]



※ 출처 : 통일부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이렇게 탄생된 ‘판문점’ 선언이라는 타이틀은 한반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한 환송공연 ‘하나의 봄’과 더불어 비무장지대(DMZ)를 갈등, 대결의 공간에서 평화와 화해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했다.

길잡이론과 ‘완전한 비핵화’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됐다. 이전의 남북회담과는 다르게 남북은 당사자 간 이슈 뿐만 아니라 북미회담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자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남북 정상이 아무리 좋은 합의를 낳아도 미국이 중시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남북 간 합의가 제대로 실현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반도 관련 정상회담 일정]

일자	장소	회담 당사국
4/27	판문점	남-북
5/8	중국 다롄	북-중
5/9	일본 도쿄	한-중-일
5/22	미국 워싱턴	한-미
6/12	싱가포르	북-미
6월중순	러시아 모스크바	한-러
6월이후	미정	남북미/남북미중

※ 출처 : 언론보도 참조 작성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이 북미정상회담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약속을 합의문에 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

남북 간에는 비핵화 논의를 하지 않는다던 북한이 태도를 바꿔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꾸준한 노력이 낳은 성과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북미회담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방향을 갖게 되었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

또한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3자 또는 4자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것 또한 역사적인 평가의 대상이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단계에서 선(先)평화협정이냐 선(先)비핵화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 논의와 평화체제 논의를 병행함으로써 향후 북미정상회담도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길잡이 역할을 분명히 했다.



[‘판문점 선언’ 발표하는 남북정상]



※ 출처 : 청와대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평화를 향한 새로운 시작,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

이번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과 발전을 첫 번째 의제로 배치했다.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합의문 제1조에 둔 것은 남북 당국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실용적 접근의 결과였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 각각 대표부를 설치하는 준대사급 관계 정상화 방식과는 달리 남과 북이 하나의 거버넌스 조직을 통해 관계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거 개성이 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해 남북협력의 메카가 된 경험을 살린다면 남북은

개성 연락사무소를 통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을 조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남북이 동해선, 경의선 등 철도, 도로의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한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민망스럽다고 표현할 정도로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가 이제 개혁의 서막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동시에 북한의 인프라 개발은 한국을 동북아 경제권으로 연결시키는 장치이자 기회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2억 인구의 동북아 지역을 하나의 거대 시장으로 묶는 경제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같은 구상을 담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전달했다는 소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성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 출처 :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 출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희망의 메시지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판문점 선언의 또 다른 면모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미래를 꿈꾸는 세대가 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상상력이 힘이 되는 시대에 좌절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꿈꾸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값진 자산이다.

남과 북 정상은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함에 따라 2018년 가을 평양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고 남북관계는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험이 이뤄지려면 대북제재 완화 등 여러 선행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 제재가 해제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과도기라 생각하고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이유이다. 



[4.27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

- ①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 ②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 ③ 10.4 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 ②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 ③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국내·외 경제지표

2018년 5월 14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6	2017 ^(E)	IMF		OECD	
			2018 ^(P)	2019 ^(P)	2018 ^(P)	2019 ^(P)
한국	2.8	3.0	3.0	3.0	3.0	3.0
세계	3.2	3.7	3.9	3.9	3.9	3.9
미국	1.5	2.3	2.7	2.5	2.9	2.8
중국	6.7	6.8	6.6	6.4	6.7	6.4
일본	1.0	1.8	1.2	0.9	1.5	1.1
EU	2.0	2.4	2.2	2.0	2.3	2.1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5	2016	'17.11월	12월	'18.1월	2월	3월	4월
원/달러	1,131	1,161	1,105	1,086	1,067	1,080	1,072	1,068
원/엔(100엔)	934	1,068	979	961	961	998	1,011	994
원/위안	180.1	174.4	166.8	164.5	165.6	171.0	169.6	169.8
원/유로	1,255	1,283	1,296	1,284	1,300	1,332	1,323	1,312
유가(Dubai)	32.2	53.8	60.82	61.61	65.77	62.72	62.74	68.27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17.11월	12월	'18.1월	2월	3월	4월
산업생산	1.9	3.0	1.4	-0.8	4.2	-1.2	-1.0	-
소매판매	4.1	4.3	5.3	1.4	1.6	6.6	7.0	-
설비투자	6.9	-1.3	6.7	2.5	21.5	9.4	-0.2	-
수출	-8.0	-5.9	9.6	8.9	22.3	3.9	6.1	-1.5
수입	-16.9	-6.9	12.8	13.6	21.3	14.9	5.2	14.5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